

삶의 의욕

오늘 석간에는 구봉 광산이 무너져 지하 50미터 굴 속에서 보름이나 갇혀 있던 양 창선씨가 구출된다고 해서 특별로 보도되어 있다. 보름 전만 해도 삼면 구석에 조그마한 사건으로 보도되었던 것이 나약한 생명을 구출해 내야 한다는 사회 여론 때문에 우리 사회의 제일 큰 화제로 번졌고, 생명의 귀중함을 온 국민에게 알려주는 사건이 되었다. 보름 동안에 양씨가 겪은 마음의 고통, 초조감, 실망 그리면서도 한가닥의 희망을 가진 경로는 아마 15년을 압축한 것만큼이나 농도가 짙은 시련이었을 것이다. 정월 초하룻날 떡국을 먹고 나서 또 한살 먹었구나 하는 여유있는 과거가 아니라, 순간순간이 일년 이상의 긴장과 초조로써 가득 찬 시간이고 보면, 사람이 나이를 먹는 것은 결코 달력의 장수가 다 떨어진 후에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성 싶다.

사람이 어찌다 보면 궁지에 빠지게 된다. 그런 경우에 비로소 시련을 알게 되고, 삶에 대한 의욕이 솟아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배부르게 먹고, 부질없이 흥청망청 여유있는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는 인생이 가지는 긴장과 보람을 느낄 기회가 드물다고 할 것이다.

아마도 우리 생활 주변에는 이러한 여유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간신히 그날의 호구지책을 강구해 나가는 사람의 수가 더 많을 것이다. 일터에 매달리는 생활(일터가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지만)에서 짜절감도 느끼곤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삶을 영위하는데 한결 긴장과 극적인 사건이 더 많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매일 같이 지하 수백 미터 속에 들어가서 배수 작업을 하는

생활이란 그리 수월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박봉에다가 오르는 물가에 생활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 일을 계속해야만 하는 생활……이러한 생활 속에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낙반 사고가 났다. 이것은 삶에 대한 그의 태도를 결정하라고 요구하는 사고와 같이 느껴진다. 사는 일을 단념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격언대로 역시 삶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살 것이냐?

우리는 이번 구봉 광산 사건을 양 창선 한 사람에게 일어난 사고로만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무게있는 교훈을 받고 있다. 사람은 어떤 궁지에 빠지더라도 삶에 대한 의욕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그리고 자기의 삶이 결코 자기 자신의 것만은 아니라는 것. 자기 생명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것이지만, 결코 자기의 것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절망 속에서도 백축의 전구와 지상과 통하는 전화줄이 있어서 이것을 의지하여 자기의 생명을 구출하려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과 언제나 보이지 않는 줄과 빛으로 매어져 있다. 우리는 그 줄로써 대화를 하고 그 빛으로 내 몸의 체온을 유지한다. 모든 인간 관계를 이렇게 생각하면 인간만큼 신비한 존재는 없는 것 같다. 서로 엮어매는 줄과 빛으로써 묶어져 있으면서도, 생존을 위한 아귀다툼을 해야 되고, 미워하고 못 견디게 하는 생활을 하니 말이다. 결국 남을 괴롭히는 일이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되고 마는 이상한 논리가 된다. 남을 학대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학대하는 것이 된다. 타학이 바로 자학

의 동의어라는 결론도 별로 무리한 말은 아닌 것이다.

생활고 때문에 집단 자살을 기도했다가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들도 있다. 이런 소식을 들을 적마다 가슴에 몽클하는 중압감을 느낀다. 내가 죽으면 저 어린 것들이 강통 들고 구걸할 것을 상상하니 차마 내 혼자 죽을 순 없어……내가 없는 하늘 아래에 내 아내나 자식들도 있을 수 없어…… 아! 정말 그럴까? 나와 내 아내 그리고 내 자식을 한데 묶어 놓는 줄이 다만 운명적인 질곡을 의미하는 것일까? 내 아내나 자식을 어떤 것으로 바꿔치기 할 때, 이를테면 한 인격을 사물화 할 때, 이런 운명에 대한 저주가 생기지 않을까? 내 아내나 자식이 결코 나의 것이 될 수 없다. 그 존재들은 다 신의 피조물로서 그 스스로의 삶을 의욕하고 영위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말이다. 삶은 어디까지나 의욕적이고 창조적인 것이다. 모든 것을 짓눌러 버리는 숨막히는 질곡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것이 생명의 힘이다. 이 힘을 자기 손으로 탈살하거나 따버린다는 것은 자살보다 더 어마어마한 죄다. 그것은 자살과 타살을 동시에 저지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라디오> 에서는 양 창선 구출의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 광산에서 있었던 수많은 희생자 중에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마스크의 영향은 대단한 것이다. 한 생명에 대한 깊은 관심과 걱정을 온 국민이 나눌 수 있게 한 것은 <마스크>의 힘이었다. 오늘도 우리가 모르는 이 땅 위의 어느 곳에서는 양 창선씨 못지 않게 처참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삶의 의욕의 결실을 가져오는데는 이런 정성어린 <마스크>의 배려와 여기에 호응하는 전 국민의 성의가 있어야만 한다.